

‘지름보살’ 포교 호재? 약재?

종교를 활용한 패러디 문화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온라인 콘텐츠 공급업체인 씨니YNK(대표 윤영석)의 ‘지름보살’이 메신저를 타고 네티즌 사이를 흥행무진 누비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름보살’은 ‘불건을 구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인터넷 언어 ‘지르다’와 보살이 합성된 신조어. 다시 설명하면 총동구매를 강요하는 신을 뜻한다.

MSN 7.0버전 ‘아이템 동네’에서 새롭게 선보인 지름신 시리즈는 플래시 워크 기능이 맞춰 개발한 엽기 유머 콘텐츠들이다. 근엄한 보살상이 카드를 긁어대며 연신 ‘질러라’를 외치며대는 이 시리즈는 강력한 총동구매의 반복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듯 네티즌 사이에 지름보살의 주가가 치솟



오면서 인터넷상에는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합성사진 시리즈가 올라올 정도로 반응이 좋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불교에서 신성시되는 보살상을 무분별하게 엽기과 막물로 패러디하는 것은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불교의 보살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패러디문화도 간접적인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자칫 불교문화를 왜곡 시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씨니YNK 윤영석 대표는 “지름보살은 불교 폄하가 아닌 하나의 인터넷 문화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름보살의 반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네티즌들의 감성과 흥미에 맞는 불교 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은 “불교문화와 사상이 효과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충분히 활용·창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신속한 대응이 영국사 지켰다

영동 산불 사찰 10m앞까지 접근...신도회·소방당국·군부대 ‘일사불란’

천년고찰 영국사가 소방당국과 신도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강풍속의 화마를 이겼다.

4월 27일 영동군 양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28일 오후 5시 45분경 사찰 10m 앞까지 접근했으나, 소방당국과 신도회원들은 산불과 사투를 벌인 끝에 영국사를 지켜냈다. 오후 6시경 불길은 영국사를 비껴 지나갔고, 29일 오전 10시 현재 산불은 거의 진화했다.

영국사가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소방당국, 공무원, 신도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산불에 대응했기 때문. 소방당국은 헬기 15대와 소방차 17대를 영국사 주변에 집중 배치해 불길을 차단했고, 영동군 손문주 군수는 산불이 발화한 27일부터 29일까지 현장을 지키며 산불진화를 지휘했다.

신도회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신도회장 배상우씨는 산불로 영국사가 위협할 것

임을 감지하고 27일 신도회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영동·옥천·대전 등지에 있는 신도들을 불러 모았다. 이날 밤 달려온 50여명의 신도는 영국사에 있는 유물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일찌감치 화마에 대비했다.

산불이 거의 진화된 29일 오전에도 60여명의 신도가 영국사에 나와,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와 군인 600여명에게 차와 음식을 지원하고 있다.

사흘 밤낮으로 산불과 싸웠던 배상우 신

도회장은 “영국사를 지켜낸 것은 신도회뿐 아니라 소방당국과 영동군, 군부대까지 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공을 돌리며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천태산 중턱에 자리잡은 영국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8년)에 원각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나 사찰 내에 보물 제532호 부도, 보물 제534호 원각국사비, 보물 제533호인 삼층석탑, 총복유형문화재 제61호 대웅전, 천연기념물 제223호인 은행나무(수령 600여년) 등 문화재가 가득한 곳이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독도에 봉축연등 밝힌다

조계사, 6일 지킴이등 걸고 위령제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 독도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연등이 내걸릴 전망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5월6일경 독도등대에 ‘독도지킴이등’을 내걸고 독도를 지키려다 순직한 수비대·경관 등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한다. 이와 관련해 조계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연등을 설치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으며,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조계사의 위령제 및 독도지킴이등 점등식 계획안에 따르면, 5월 1일 조계사 중무원과 신도로 구성된 실무팀이 독도로 입도해 등대 주변에 직경 90cm 크기의 지킴이

등 10여개를 설치한다.

그 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30여명의 불자들은 5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독도에 들어가 점등식과 순직경관 위령제를 봉행한다. 5월 18일까지 불을 밝혀줄 독도지킴이등은 독도는 물론 등대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게 비출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사측은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불자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봉축연등을 내걸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조계사 일주문 상량식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를 추진 중인 조계사(주지 원담)가 4월 27일 새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일주문은 15평 규모에 산문형식의 외7포 외7포 맞배지붕 형식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통양식이다. 조계사는 이날 일주문 상량식 봉행 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일주문을 완공하고 오는 8월 중 대웅전 중수 기와공사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1차 성역화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사진=조용수 기자

“국제사회 종교화합이 필수” 재가연대 세미나서 강조

“현재 선연적으로 규정된 종교자유 관련 법령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강화돼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연구원)이 4월 29일 마련한 ‘국제종교자유실태와 정책동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종교자유 관련법과 제도의 ‘현실적 강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종교자유 현황을 발표한 종교문화연구소 이진구 연구위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교회를 대표해 말하지 않으며 교회 또한 저를 대신해 말할 수 없다”고 연설한 케네디의 예화를 제시하며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양대 박규태 교수와 한국외대 류경희 교수는 종교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 검찰 고발 취하요구 비리의혹 공개토론 제안

4월 26일 일산불교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동국대 제209차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영배스님은 종상 스님을 비롯한 반대 측 이사를 향해 먼저 ‘필동병원 매입건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의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종상 스님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잠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발취하 대신 비리의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이사회는 일산불교병원 운용자금 300억원에 대한 기재를 승인했다. 또 장운 스님을 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새 세계위원으로 해림 스님을 선임했다.

한편 동국대 교수회(회장 염준근)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동국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재단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용수 기자

안국선원 뉴욕분원 개원

현지인대상 선불교 강좌



미국의 뉴욕에 간화선을 전할 도량 안국선원 뉴욕분원이 4월 17일 문을 열었다. 미국 내 안국선원 분원으로는 휴스턴에 이어 두번째. 박법륜화보살의 보시로 뉴욕 맨해튼 웨스트 29번가에 뉴욕분원을 마련한 (재)안국선원은 4월 17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비롯해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앞으로 안국선원 뉴욕분원은 미국내 선불교 대중화를 위해 간화선 지도, 수불 스님의 동영상 법회 등을 연다. 또 현지 미국인들을 위한 선불교 강좌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수불 스님은 “뉴욕분원의 개원은 단순히 본원이 생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찾는 교인과 현지 미국인들이 확고한 신심과 보리심을 일으켜 각자가 깨달음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법계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한편 안국선원은 개원에 앞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수불 스님을 법주로 ‘간화선 수행 특별지도’ 강좌를 마련해 뉴욕분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박봉영 기자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 557명 참가 성황

“천태 어린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4월 24일 대구 남부초등학교에는 성화가 타오르는 가운데 알록달록 특유의 단체복을 차려입은 남부지역 17개 천태종 사찰의 어린이불자 557명의 합성이 하늘을 찌른다. 제16회 남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가 열렸다.

오전 9시,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대령아치를 통과하는 선수 입장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사물놀이로 앞세운 마산 삼학사, ‘2005 올인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 개최를 홍보하는 봉화사, 대성사는 법고, 목어, 운반, 범종 사물을 주제로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진해 해장사는 목도 수호대를 차려하고, 상주 청통사는 꽃간 캐릭터 감돌이와 감순이를 앞장 세웠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응원 열기 또한 만만치 않았다. 진주 월경사는 흰 티에 이름을 새긴 노란 하트를 앞뒤에 붙이고 머리에는 별 무늬 가득한 머리수건으로 장식, 응원 2연패에 도전했다. 응원도구도 만만치 않다. 북은 기본, 빨간 플라스틱 세숫대야, 고무장갑까지 기상천외한 도구들이 모두 동원됐다.

피구, 단체줄넘기, 흥부네 이불 통과하기 등 사찰별 경기와 파도타기, 디스코 릴레이, 도전 의자왕 등의 이색 게임이 청풍, 황룡, 코끼리, 사자 등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에는 밝은 웃음과 합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동지스님은 “정서적으로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협동심과 불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과 하나 되어 준비했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이날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동지스님은 “정서적으로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협동심과 불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과 하나 되어 준비했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불자들에게만 산문 개방 문경 봉암사

부처님오신날과 정초, 백중기도 때에 사찰출입을 개방했던 문경 봉암사가 올해부터는 사찰출입을 불자들에게 한해 개방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특히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던 부처님오신날에도 앞으로는 불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다.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이 있는 봉암사는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에 일반인들에게 사찰을 개방해왔으나, 등산객의 무분별한 행위와 관광객행사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는 물론 사찰행사에 차질을 빚는 등 지·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

한편 봉암사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한국전통차사발축제에 협조해 달라는 문경시의 요청에 따라 전야제가 열리는 4월 29일 행사 관계자와 불자들에게 한해 사찰을 개방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2005 대한민국 불교음악 페스티벌 찬불, 그 크신 가피 속으로...

행사 1. 제5회 창작찬불가 공모

불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21세기 불교정서를 표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찬불가를 창작·보급하고자, 제5회 창작찬불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불교음악의 유일한 등용문으로써의 권위를 지니는 본 공모에 제능 있는 음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공모부분 | ● 독창곡 ● 합창곡
※ 노랫말이 필요하신 분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기사모듬방 이용
- 접수기간 | 2005년 9월 5일(월) ~ 2005년 9월 9일(금)
- 입상발표 | 2005년 9월 27일 조계종 홈페이지 / 교계신문 / 입상자 개별 통보
- 시상내역 |
 - 대 상 1명 (상금 500만원, 상패)
 - 우수상 1명 (상금 300만원, 상패)
 - 장려상 2명 (상금 100만원, 상패)
 - 입 선 5명 (상금 20만원, 상패)
 - 아름다운 노랫말상 1인 (상금 100만원, 상패)
- 시상 및 연주 | 2005. 12. 6(화요일) 오후 2시 / 리틀엔젤스예술회관

행사 2. 2005 대한민국 불교합창 공쿠르

불교합창단의 지역간 균형 있는 불교음악 발전과 친목 도모 및 불교음악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25개 종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불교음악 축제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수회동참 바랍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예 선	서울	2005. 10. 14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예정)
	경기	2005. 10. 15 (오후 2시)	
	충남·충북	2005. 10. 17 (오후 2시)	
	경북·경남	2005. 10. 20 (오후 2시)	
	제주	2005. 10. 24 (오후 2시)	
본 선	2005. 12. 6 (오후 2시)	리틀엔젤스예술회관	
2. 경연방법 | 예선·본선 :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총 2곡)
※ 지정곡 악보는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3. 접수기간 | 2005년 9월 5일(월) ~ 2005년 9월 9일(금)
4. 시상내역 |
 - 대 상 1팀 (상금500만원, 상패)
 - 우 수 상 1팀 (상금300만원, 상패)
 - 장 려 상 3팀 (상금100만원, 상패)
 - 지휘자상 1인 (상금200만원, 상패)

행사 3. 2005 불교 전통음악과 오늘의 소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로 오롯이 자리 매김하고 있는 불교의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하며, 나아가 21C의 우리문화를 선도 할 수 있는 불교음악을 창작·시연합니다. 의식곡을 비롯한 생활 찬불가와 무대 연주곡(합창/기악) 등을, 불교 전통음악 작곡 기법으로 창작한 것으로 불교음악의 방향과 정체성 구현에 뜻을 둔 행사입니다.

1.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요일) 오후 7시
2. 장 소 | 리틀엔젤스예술회관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2011-1770
 실무총괄 황학현 02)725-7527, 011-274-8678
 ※ 행사 세부내용 및 서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시행 사) 불교음악협회